



정봉희 _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충
남
마
을
탐
방

부여에 이렇게 아름다운 돌담길이 있을 줄이야. 더구나 부여가 고향인 필자로서 죄책감(?)마저 들기까지 했다.

유홍준 전문화재청장이 살고 있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도 다뤄지며 돌담길의 속살까지 보여준 적이 있는 마을이 바로 부여 '반교마을'이다.

충남 부여군 외산면 아미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반교마을은 어느 시골 풍경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지만, 지난 2006년 '이 마을 돌담길은 향촌마을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어 이를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넘겨주고자 등록문화재로 등재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는 비문이 새겨진 뒤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반교마을 모습〉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돌담~ 하면 아산 외암민속마을을 떠올리기 쉽다. 잘 모르는 필자가 느낀 두 돌담의 차이는 바로 '소통'이라고나 할까?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외암마을의 돌담은 관광객들이 쉽게 집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쌓여 있다면, 반교마을의 돌담은 방풍의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밖이나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교마을 돌담 너머 보이는 주민들의 일상〉



〈외암민속마을의 돌담 내부를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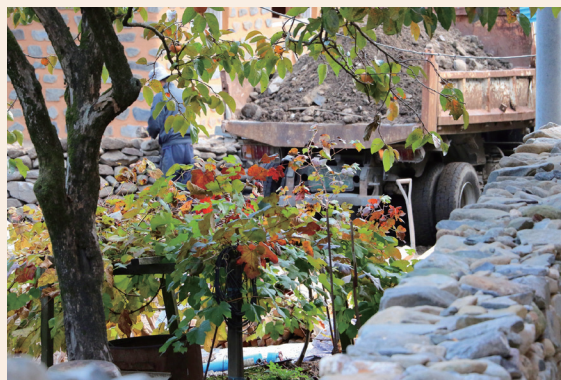
현재 반교마을에는 약 80가구가 살고 있다. 마을에서 돌담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대략 3년 전. 외출로 쌓여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돌담을 두 줄로 견고하게 쌓았고, 지금까지도 돌담 쌓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필요한 돌들은 이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산촌이어서 그런지 어느 땅을 파든 아주 잘 자란(?) 막돌이 많단다.

‘반교마을 돌담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건성쌓기 또는 메쌓기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말처럼 건성건성 쌓은 듯 보이지만 나름의 방법과 규칙이 있다.
큰 돌을 지대석으로 사용해 두 줄 깔고 점점 작은 돌을 쌓아가는 것이다.
담의 가운데로는 자잘한 돌과 흙 등을 넣어 속을 채워
빈 공간을 메꾼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충
남
마을
탐
방





〈반교마을 돌담길 모습〉

요즘 마을에는 외지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주말에는 관광버스가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그런데 필자가 보니 말 그대로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하는 관광인 것이다. 마을 이장님이나 청년회장인 유흥준 전문화재청장님이 나서서 마을에서 키워 재배한 농산물, 돌을 깎아 만든 기념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돌담길해 설사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유흥준 전문화재청장이 머무는 휴휴당(休休堂, 편안히 쉬는 작은 집)에도 가 보았다. 마을의 돌담길을 쫓 따라 올라가면 크지 않은 한옥과 마당, 그리고 그 앞을 흐르고 있는 냇물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킬 정도다. 반교마을의 인기를 끌어올린 장본인인데,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유 전.청장 손님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처음엔 그림에서 보이는 장대 2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그만 마당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저것은 집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라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휴휴당과 주변 풍경〉



〈반교마을 입구에서 본 유스호스텔〉

특이하게 이 마을 입구에는 유스호스텔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부여군에서 짓고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개인 소유의 유스호스텔이라고 했다. 폐교된 반교초등학교를 활용, 수도권의 유치원생들을 모집해 체험 활동이나 현장학습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이사 왔다는 김 모 할머니는 ‘이 프로그램 안에 반교마을 돌담길 걷기체험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애들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남



너도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마을인 만큼,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다면 재미와 감동이 두 배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사실 반교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필자가 1+1 패키지로 추천하고 싶은 코스가 바로 '무량사'이다. 반교마을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만수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사까지 주차장에서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마침 무량사로 들어가는 길가에 빨갭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이 필자를 반겨주는 불꽃놀이 같았다.



〈부여 무량사 모습 등〉



무량사는 통일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고 조선 인조 때 다시 지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극락전(보물 제356호)을 중심으로 5층 석탑(보물 제185호)과 석등 등의 국가 지정보물이 있다. 또한, 조선 세조 때 생육신 중 한 분인 김시습의 부도(浮屠)와 영정(影幀)이 있어 더욱 뜻 깊은 사찰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반교마을 이야기로 돌아와 마무리해보자. 반교마을은 옛 돌담길이 유명한 시골마을이다. 그리고 돌 하나하나가 쌓여있는..., 세월로 치자면 이루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세월의 흔적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소소한 마을이란 뜻이기도 하다. 이런 마을에 왜 바람도 멈춰 쉬고 가는 것일까! 직접 돌담길을 걸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 걸어도, 누군가와 함께 추억을 공유해도 좋다.

참~ 이 마을을 둘러볼 때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라고 전하고 싶다. 서먹서먹해서 인사 나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어디선가 또 마주치게 되어 더 당황할 수도... ^^

